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merittrading@hanafos.com

춥기만 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학교급식과 봄나들이로 인해 3월이 오면 소비는 한층 더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 또 지긋지긋한 AI 염려도 없어지고, 소비자들도 닭고기를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다. 지난 겨울, 소비침체로 사라졌던 관련 업계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면 좋겠다.

2006년의 경우 약 30개국에서 빈번하게 AI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AI가 '왜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발생하지 않느냐' 라는 것은 계육업계의 또 하나의 불가사의로 남는다.

지금도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치명적인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관계당국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철새이동이 잦은 3월에도 빈번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EU에서는 AI 특별팀을 신설해서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AI는 더 이상 겨울에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것 같다.

최근 3년간의 소비흐름을 보면, 이제 AI는 매년 방문하는 불청객이 되었다. 이번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2~3달 정도는 극심한 소비침체에만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고전을 할 것이다.

새 봄과 더불어 겨울의 소비침체에 대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세워 둔다면 참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2월과 3월 선적분에 대한 거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3월 도착분 원가가 1,500원 정도인데 반해, 현재 유통되는 가격은 1,400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침체로 좀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저가의 냉동비축량 또한 시장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미국의 업체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판매를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내 물량이 넉넉지 않은 상태이다. 3월 Foodex In Japan에서 많은 의사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의 정확한 거래량이 가시화 될 것이다. 3월 도착되는 미국산 가금육의 수입량은 20~30% 정도 감소될 것이다.

브라질

전 세계 약 130개국에 가금육을 수출하는 브라질은 최고의 정보력과 지역적인 가격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고, 한국에는 일반적인 국제가격보다는 한국시황에 맞는 가격을 전개하고 있다.

미들윙(Middle Wings)과 윙봉(Wing Sticks)의 경우 3월 선적분 가격이 2,500불 정도이며, 2/4분기 가격흐름을 보아 좀처럼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도 안정적인 가격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국내 유통 가격도 학교급식이 재개됨에 따라서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수입되는 2/4분기 물량과 가격은 역시 일본의 푸드 쇼를 통해 서로의 정보가 공개된 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개월간의 소비침체와 비용증가로 인해 서 무역업체는 많이 위축되었고, 보수적인 구매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3월 국내 시장의 소비 상황을 살펴보면 신중하게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꾸준히 한국에 유입되고 있고, Rose Poultry

사의 종계가 국내 굴지의 H사의 종계와 같은 '코브' 라는 인지가 알려지면서 날개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K치킨과 H사의 경우 품질검사를 마치고 과거 브라질산 대신 덴마크산으로 구매선을 변화시키고 있다.

육류의 경우 품종에 따라 맛과 스펙이 차이가 나는데 H사와 동일한 품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산 날개의 경우 품질이 매우 좋으나, 윙봉(Wings Sticks)의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해동시 잘생긴 국내산 날개의 모양과 다소 차이가 나서 수입육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3월 선적분 가격은 2,300~2,400불 정도이며, 2/4분기 흐름을 보아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전후로 일시적인 덤핑이 나왔으나, 3,000원선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상당수의 업체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가금육의 기대수익률이 너무 저조해서 중국산 가공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과 태국의 가공품 수입량이 1,400톤이라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과거 꼬치류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훈제 치킨, 치킨소시지 등 수십 종의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쪽에서도 좋은 관계를 희망하고 있어서 사업의 전개가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의 가공품 품질이 여타의 제품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다.

무역업체의 경우 L/C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필연적이며, 가공품 교역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계육시장은 변화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1인당 GNP가 20,000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유럽의 선진국처럼 가공품 시장은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한국의 계육산업은 완전 경쟁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종계 쿼터제가 없어지고, 자생을 위해 도계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한국에 가금육을 수출하는 칠레와 벨기에 등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 또한 시장을 통제하고 조율하기보다 자유 시장 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뉴스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간 닭고기’ 광고 안내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국내 계육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닭고기 전문지입니다.

‘월간 닭고기’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께서는 편집부(031-707-5722~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닭고기 지면별 광고금액〉

[2007년 3월 현재]

광고 게재면	광고료(원)	비고	
표2(표지 2면)	900,000	칼라	※ 부가세 없음. ※ 연간 계약시 광고료 조정 가능 ※ 광고게재시 책 증정
표3(표지 3면)	800,000		
표4(표지 4면)	1,000,000		
표2연결면(대면)	700,000		
표3연결면(대면)	600,000		
내지	500,000		

광고문의 (031)707-5722~4 ‘월간 닭고기’ 편집부